

[2020년 10월 17일 시행 경찰간부 70기 한국사 기출해설] - 월비스/프라임법학원 한국사 원유철

1. 우리나라에서 화석 인골이 출토된 구석기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7

- ①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용곡인이 출토되었다.
- ②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두루봉인이 출토되었다.
- ③ 평양 대현동 유적에서 역포인이 출토되었다.
- ④ 제천 점말 동굴에서 흥수아이가 출토되었다.

해설 ③ 평양 역포 대현동 동굴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이 머리뼈가 발견됐는데, 이를 ‘역포인’이라 한다.

오답 ① (용곡인→덕천인, 승리산인).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유적은 맨 아래층에서 사람의 이빨 화석 2개와 어깨뼈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덕천인’(중기구석기)이라 부르고, 위층에서 사람의 아래턱뼈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승리산인’이라 부른다. ‘용곡인’은 평양 상원 용곡1호 동굴에서 출토되었다. (북한지역정보넷) ② (두루봉인→흥수아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에서는 후기 구석기 어린이 뼈 2구가 온전한 개체로 출토되었는데, 한국 최초로 발견자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 이름 지었다. ④ 제천 점말 동굴에서는 인골은 출토되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새긴 코뿔소[털코뿔이] 뼈가 발견되었다.

tip ♣ 한국의 구석기 고인류 화석¹⁾

1. 북한(대동강 유역)²⁾ 승.만.도.상.덕.용.역.금.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 덕천인 (중기구석기) : 유적 맨 아래층에서 사람의 이빨[어금니] 화석 2개와 어깨뼈 화석 발견.
	· 승리산인 (후기구석기) : 위층에서 사람의 아래턱뼈 화석 발견
평양 상원 용곡1호동굴	· 용곡인 (중기구석기) : 비교적 온전한 머리뼈, 턱뼈
평양 역포 대현동 동굴	· 역포인 (중기구석기) : 7~8세 정도의 어린아이 머리뼈[두개골]

- 1) 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화석인골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기·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화석인골이 발견되었다.
- 2) 북한학계에서는 덕천사람에서 출발된 인류가 역포인과 승리산인이 되며 만달인으로 발전하였다는 본토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평양 만달리 동굴	· 만달인(후기구석기) : 20~30세 정도의 성인남자의 머리뼈, 턱뼈, 팔·골반·넓적다리뼈
평양 상원 금천동굴	· 금천인 (후기구석기) : 아래턱뼈·이·몸뼈 등

2. 남한

청원 두루봉 동굴	· 흥수아이(후기 구석기) : 후기 구석기 어린이 뼈 2구가 온전한 개체로 출토
단양 상시 바위그늘	· 상시인(후기 구석기) : 머리뼈, 팔뼈 등

정답 ③

2. 다음 단군신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적중사례] 역사일지 p28,23,451

- 가. 「삼국사기」에는 ‘단군’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평양은 본디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라는 설명이 있다.
- 나.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은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였다.
- 다. 이규보가 지은 「제왕운기」에도 단군신화가 실려 있다.
- 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통감」에도 단군신화가 실려 있다.
- 마. 단군기원은 「삼국유사」의 요임금 즉위 50년(기원전 2283년)을 따른 것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마 ④ 라, 마

해설 (가.나). 가. 삼국사기는 삼국부터 서술한 책으로 단군신화나 고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다만 평양 지역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이 곳이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라고 하여 단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나. 삼국유사는 단군이 요임금 즉위년에 건국했다는 ‘위서’의 기록과, 요임금 즉위 50년(경인년)에 건국했다는 ‘고기’의 기록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오답 (다.라.마). 다. 이규보→이승휴 라. 동국통감은 단군을 개국시조로 하여 역사의 서두로 서술하였으나, 신화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역사적 실재로 서술하였다. 즉 동국통감의 서술내용은 신화와 전설적인 것이 배제되었으며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연·재이 등과 같은 기사도 삭제하였다. 마. 현재 단군기원은 삼

국유사의 요임금 즉위 50년 설이 아니라, 동국통감의 요임금 즉위 25년(BC2333) 설을 따르고 있다.³⁾ 이것이 현대 단군 인식의 기준이 되었다.

정답 다.라.마. (경찰청 답 ③)

3. 다음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37

가. 토지는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고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혼인하는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혼인 약속을 하고 신랑집에서는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나. 대군장이 없고 후·읍군·삼로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사료적중 역사일지** pp36,37

- ① 가 -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 ③ 가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 ④ 나 -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

해설 가. 옥저 나. 동예. ④ (동예). 강원도 지역에서凸자형, 凹자형의 작은 집터가 발견되는데, 이는 동예가 실제 집을 자주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사료 ‘오곡이 잘 자라고 농사짓기에 적합’, ‘여자의 나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혼인 약속을 하고 신랑집에서는 맞이’(민며느리제) / ‘대군장이 없고 후·읍군·삼로의 관직이 있어’,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책화),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족외혼)

3) 고조선의 건국 연대는 요임금 즉위 50년(삼국유사), 요임금 즉위년(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요임금 즉위 25년(동국통감)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요임금 자체가 신화 속의 인물이라 요임금 즉위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답 ① 삼한 ② 삼한 ③ 동예

정답 ④

4. 다음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에서 시기적으로 네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시간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45,46,50,63

가. 낙랑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나. 위(魏)의 장수 관구검의 침공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다.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하였다.
라.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차지하고 북으로 속신을 정복하였다.
마. 전연 모용황의 침략으로 궁궐이 불타고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해설 나. 위장 관구검 침입으로 환도성 함락(동천왕) → 가. 낙랑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 확보(한4군 축출, 미천왕) → 마. 전연 모용황 침입으로 부왕(미천왕)의 무덤이 파헤쳐 지고, 모후와 포로 5만명 잡혀감(고국원왕) → 라. 후연 공격해 요동지역 장악, 북으로 속신 정복(광개토대왕) → 다. 말갈 병사 1만을 거느리고 요서지방 선제 공격(영양왕, 598)

정답 ③

5. 백제의 무덤 중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부여 능산리 1호분(동하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151

- ① 방이 여러 개인 다실묘이다.
- ② 봉토를 덮은 굴식돌방무덤이다.
- ③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다.
- ④ 무덤방의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해설 ④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부여 능산리 1호분(東下塚: 동쪽 아래에 있는 무덤)은 둘 다 사신도가 발견되었다.

오답 ① 둘 다 단실묘이다. ②·③ 송산리 6호분은 벽돌무덤, 능산리 1호분은 굴식돌방무덤이다.

tip 송산리 고분군(1~5호분 굴식돌방무덤, 6~7호분 벽돌무덤), 능산리 고분군(1~7호분 모두 굴식돌방무덤 *뚜껑돌 아래 묘실은 모두 지하에 위치)

정답 ④

6. 다음 중 밑줄 친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66**

문수가 또 말하기를 “너희 국왕은 천축의 찰리종 왕으로 미리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연인 있어 동이 공공의 종족과는 같지 않다.”
…(중략)… 신인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은 없다. 그러므로 이웃나라가 꾀하는 것이다. 마땅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자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장차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신인이 “황룡사 호법룡은 나의 장자로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에 가서 호위하고 있으니 본국으로 귀국하여 절 안에 9층탑을 조성하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삼국유사」-**사료적중 역사일지 p143**

- ① 황룡사를 창건하였다.
- ② 당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 ③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④ 仁平(인평)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해설 선덕여왕 때 자장이 황룡사 9층탑을 만들 것을 건의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선덕여왕 재위기(632~647)의 일을 묻고 있다. ④ 선덕여왕

tip 건원(법흥, 신라 최초) → 개국·대창·흥제(진흥왕) → 건복(진평) → 인평(선덕) → 태화(진덕)

사료 ‘신인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은 없다.”’, ‘자장’, ‘황룡사 호법룡은 나의 장자…절 안에 9층탑을 조성하면…구한이 와서 조공’

오답 ① 진흥왕 ② 나당연합(648, 진덕여왕) ③ 삼대목 편찬(진성여왕, 각각 위흥과 승려 대구와 상에게 명해 편찬)

정답 ④

7. 다음 보기의 시를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133**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튼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 편에 편지 한 장 부쳐보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이 안들리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일남(日南)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

사료적중 역사일지 p133

- ① 화엄종을 개창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다.
- ② 당나라 현장법사에게서 수학하고 유식론을 발전시켜 당나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당을 거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각 지역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 ④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의 사상적 대립을 완화하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해설 혜초가 인도(오천축국)를 여행하면서 느낀 감정을 오언시로 지은 것이다. 혜초에 대해 묻고 있다. ③ 혜초

사료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

오답 ① 의상 ② 원측 ④ 원효

정답 ③

8.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71~72**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과 함께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였다. 왕이 그를 예로 대우하여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삼국사기」-**사료적중 역사일지 p59**

가.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다.

나. 진흥왕대에 신라로 병합되었다.
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라. 이 나라의 지배층 무덤으로 지산동 고분군이 유명하다.
마. 5세기 말에는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금관가야가 신라 법흥왕에게 투항한 것을 설명하는 사료이다. 김구해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다. 금관가야에 대해 묻고 있다. 다. 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침입(400)으로 금관가야가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

사료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과 함께...투항...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오답 (가.나.라.마). 가. (대가야). 대가야는 중국 남제에 사신을 파견해 '보국장군 본국왕'이라는 책봉호를 받았다. 나. (대가야). 진흥왕 때 화랑 사다함이 기병 5,000명을 이끌고 대가야를 공격하여 복속시켰다(562). 이로써 가야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라. (지산동→대성동). 금관가야는 대성동 고분군(경남 김해), 대가야는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이 유명하다. 마. (대가야). 대가야는 백제의 세력이 위축된 5세기 후반 웅진 시기에 소백산맥 너머 전라북도 남원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정답 ②

9. 다음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촌락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121~122

가.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나. 촌주가 소유한 내시령답과 관모전답이 있었다.
다. 촌주가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촌 단위로 매년 다시 작성하였다.
라. 호구는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마. 사해점촌, 살하지촌 등 중원경 부근 4개 자연 촌락에 대한 조사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모두 틀림).

오답 가. (민정문서에는 토지 등급 규정이 없다). 고려시대 처음으로 토지 비옥도[전분] 3등급이 등장하고, 조선 세종 때 6등급으로 확대되었다. 나. 촌주는 촌주위답(수조지 추정)을 받았다.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는 관리가 받은 일종의 '관료전'이고, 관모전답은 관청이 받은 토지이다. 다. 매년 다시 작성→매년 조사해 3년마다 다시 작성 라. (6등급→9등급). 사람[人]은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호는 인구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마. 중원경→서원경

정답 ①

10.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나라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146,145,152

열국을 주관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바다 또한 아득히 멀어서 소식이 통하지 않고 길흉을 물음이 끊어졌습니다. 어진이와 가까이 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속일본기」- 사료적중 역사일지 p94

가. 동경 옛 터에서 이불병좌상이 출토되었다.
나. 상경 옛 터에서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되었다.
다. 중경 옛 터에서 6m가 넘는 거대한 석등이 출토되었다.
라. 지린성 장백진에 고구려의 영향을 보여주는 벽돌로 만든 영광탑이 있다.
마. 정혜공주 묘지문에서 부왕인 문왕을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 칭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나, 마

해설 발해의 불교문화에 대해 묻고 있다. 가. 이불병좌상 출토(동경) 나. 금동관음보살입상(상

경) 마. 정효공주의 묘비명에 [公主者 我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之第四女也]라 쓰여 있고 정혜공주묘비에도 [公主者 我大興寶曆孝感□□□法大王之第二女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혜공주묘비가 깨지고 마멸이 심해 판독이 어려운 것이고, 두 묘지석은 개인 인적사항을 빼고는 내용이 거의 같다.

tip ♣ 발해의 주요 문화재들 출토지역

1. 상경(헤이룽장성 닝안) : 석등, 금동관음보살입상, 발해 치미, 귀면와(도깨비 얼굴 기와), 온돌 터 (cf. 연해주 등에서도 발견)
2. 동경(지린성 훈춘 팔련성) : 이불병좌상
3. 중경 근처(지린성 용두산) : 정효공주 묘(묘비, 12명의 인물 벽화, 무덤 위 벽돌탑)
4. 구국 근처(지린성 돈화현 옥정산) : 정혜공주 묘(묘비, 돌사자상)
5. 기타 : 영광탑(지린성 창바이진[길림성 조선족자치현 장백진]), 발해 수막새(고구려 수막새 계승)

사료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답 (다.라). 다. 중경→상경 라. (고구려→당). 벽돌탑인 영광탑은 당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cf. 무덤 위에 쌓은 탑[묘탑장]으로 보는데, 이럴 경우 당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정답 가.나.마. (경찰청 답 ①)



11.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231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은 병들고, 나라의 창고는 비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가) 을(를) 만들고 이를 시정 하고자 하니 …(중략)… 기한 내 시정 하는 자는 그냥 두겠으나, 기한 경과 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며,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고려사」- 사료적중 역사일지 p231

- ① 교정도감
- ② 도병마사
- ③ 식목도감
- ④ 전민변정도감

해설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사료이다.

사료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토지를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다.’, ‘기한 내 시정하는 자는 그냥 두겠으나, 기한 경과 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

오답 ① 최충헌이 설치한 권력기구 ② 국방의 일을 관장하는 재추회의기구 ③ 법제, 격식 등을 제정하는 재추회의기구

정답 ④

12. 다음 고려 시대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182~183

- 가. 중앙군 2군은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맡았다.
- 나. 특수군인 광군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다.
- 다. 중앙군 6위 가운데 금오위는 경찰, 천우위는 의장 임무를 맡았다.
- 라. 5도의 주현군은 직업 군인으로 군인전을 지급받고 역을 자손에게 세습하였다.
- 마. 양계의 주진군은 주·진에 주둔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춘 상비적 전투 부대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나.다.마). 다. 6위 중 좌우위·신호위·흥위

위가 핵심적인 전투부대로 수도방위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였고, 금오위는 경찰 임무, 감문위는 궁성 내외 여러 문 지키는 수문군, 천우위는 의장 부대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주진군은 양계 지역의 토착인 중심의 군대로 상비군 성격을 띠었다.

오답 (가.라). 가. (2군→6위). 2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이고, 6위가 수도경비와 국경방어를 담당하였다. 라. (5도의 주현군→중앙군). 중앙군은 직업군인(군반씨족)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정답 ③

13.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168

(가) 때 대사 중서령 최충이 후진을 모아 교육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가득했다. 마침내 9재로 나누어 …(중략)… 그 후로부터는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이는 9재에 이름을 올리게 되니 이름하여 문헌공도라 했다. 또 유신으로서 도를 세운 이가 11인이 있다.

-「고려사」- **사료적중 역사일지 p185**

가. 향리의 공복을 규격화하였다.
나. 웅장한 규모의 흥왕사를 창건하였다.
다. 사형수에 대해 삼심제를 실시하였다.
라. 관학 진흥을 하기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마.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여 3경에 포함하였다.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나, 마 ④ 다, 마

해설 문종 때 사학12도 설립에 대한 내용이다. 문종 대의 일을 묻고 있다. 나. 흥왕사 창건(문종) 다. 사형수 삼심제 실시(문종) 마.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해 3경에 포함(문종, 중기 3경제 성립)

사료 ‘중서령 최충이 후진을 모아 교육…마침내 9재로’, ‘유신으로서 도를 세운 이가 11인이 있

다.’

오답 (가.라). 가. 향리의 공복 제정(현종) 라. 양현고 설치(예종)

정답 ①

14.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258~259,261

가. 고금록 - 박인량이 편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나. 삼국사기 - 김부식이 주도한 관찬 사서로 기전체 서술방식이다.
다. 해동고승전 - 각훈이 선종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라. 동명왕편 - 이규보가 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찬양한 서사시이다.
마. 본조편년강목 - 민지가 편찬한 고려의 역사서로 기사본말체 서술방식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나.라.)

오답 (가.다.마). 가. 박인량의 고금록(문종 즈음)은 현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인종, 김부식)이다. 다. (선종→교종). 각훈은 화엄종 승려로 교종의 명을 받아 삼국시대 이래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한 것이다. 무신집권기 침체된 교종[화엄종]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도 본다. 마. (기사본말체→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한). 민지는 충선왕명으로 고려시대 역사를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해 《본조편년강목》을 편찬했는데(충숙왕, 1317), 이는 최초의 강목체 역사서술이다. 현전하지는 않는다.

정답 ③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221

을유에 왕이 개경을 출발하여 승천부에 이르고 병술에 강화의 객관에 들었다. 이때 장마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진흙길이 발목까지 빠져서 사람

과 말이 쓰러졌다. 고관이나 양가의 부녀들로서 맨발로 엮고이고 하는 자까지 있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서 갈 바를 잃고 소리 내어 슬피우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고려사절요」-

- ① 고려 원종 재위시에 있었다.
- ② 당시는 최우가 실권을 장악한 무신집권기였다.
- ③ 몽고의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④ 강화는 39년 간 고려의 도읍지로 기능했다.

해설 강화천도(고종19년, 1232, 최우집권기) 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② 최우집권기(1219.고종6년~1249.고종36년) 몽골 침입이 시작(1231)되고 강화천도(1232)를 단행하였다. ④ 강도 시기(江都, 1232~1270)

사료 ‘왕이 개경을 출발하여...강화의 객관에 들었다.’, ‘양가의 부녀들로 맨발로 엮고이고...’

오답 ① 고종시기(최씨집권기, 1213~1259)에 몽골의 침략과 항전이 있었고, 원종 시기(최씨정권 붕괴 후, 1259~1274)에는 몽골과 화친교섭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16. 원간섭기 고려에 전래된 원의 문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족두리
- ② 언어 ‘○○치’
- ③ 음식 ‘소주’
- ④ 의복 ‘두루마기’

해설 ①·②·③ 족두리, ‘~치’ 표현, 소주 등이 몽골에서 전래된 것이다.

오답 ④ 두루마기는 고려의 의복이 몽골에 영향을 준 것이다.

tip ♣ 몽고풍 : 변발과 호복(왕실이나 관리들 사이에서 유행), 소주, 여자의 족두리, 신부의 얼굴에 찍는 연지, 남녀의 옷고름에 차는 장도 등(민간에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현존), 이 밖에 우리말 가운데 아치 또는 치가 붙는 말(장사치 등), 임금의 진지상을 뜻하는 소라 등이 몽골의 영향

을 받은 것이다. (6차 교과서)

♣ 고려양 : 고려의 풍속 가운데 의복, 신발, 모자와 만두, 떡 등의 음식이 몽고 사회에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고려 만두, 고려 떡 등의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④

17. 다음 고려 시대 대외관계를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190~191,220

가.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였다.
나. 동북 9성을 여진에게 주었다.
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이겼다.
라. 거란에서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다.
마.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 ① 가-라-다-마-나
- ② 나-마-라-다-가
- ③ 라-다-마-나-가
- ④ 마-나-라-다-가

해설 라. 만부교 사건(태조) → 다. 강감찬 귀주대첩(현종10년,1019) → 마. 윤관 별무반 조직(숙종,1104)&여진 정벌(예종2년,1107) → 나. 동북9성 환부(예종3년,1108) → 가. 몽골 고려 침입(고종18년,1231)

정답 ③

18. 다음 보기의 (가)에 들어갈 장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276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 온다
을축 사월 갑자일에 (가)을(를) 이룩하세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가) 중건에 다 들어간다

사료적중 역사일지2권 p6

- ① 창덕궁 다음으로 창건되었다.
- ② 조선 후기의 법궁(정궁)으로 기능했다.
- ③ 궁궐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 ④ 궁궐 동쪽에 사직단, 서쪽에 종묘가 배치되어 있다.

해설 (가) 경복궁에 대해 묻고 있다. ③ 태조가

정도전에게 새 궁궐과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여 궁궐의 이름은 경복궁(景福宮, 시경의 ‘만 년토록 큰 복을 누리라’ 인용), 전각의 이름은 강녕전(康寧殿)·연생전(延生殿)·경성전(慶成殿)·사정전(思政殿)·근정전(勤政殿)·융문루(隆文樓)·융무루(隆武樓)·근정문(勤政門)·정문(正門)으로 정해졌다. 이 이름들은 《시경》과 《서경》 등 유교 경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사료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가) 종간에 다 들어간다’

오답 ① 경복궁(태조) 다음으로 창덕궁(태종)이 창건되었다. 태종이 한양 환도 후 정도전과 관련이 있는 경복궁을 꺼려해 따로 창덕궁을 만들었다. ②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조선후기에는 창덕궁이 주로 법궁(정궁)의 기능을 하였다. ④ 좌묘우사라고 하여 궁궐 좌측(동쪽)에 종묘가, 궁궐 우측(서쪽)에 사직단이 마련되었다.

정답 ③

19. 조선 전기 문화·예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476

- ① 소박한 멋을 보여 주는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 ③ 안평대군, 김정희 등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高士觀水道)는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해설 몽유도원도는 조선 세종 때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으로, 현재는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오답 ① 청화백자→분청사기 ③ 김정희는 19세기 서예가이자 문인화가이다. ④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18세기 등장한 진경산수화에 대한 설명이다. 고사관수도는 사색에 잠긴 선비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그림이다.

정답 ②

20. 다음 보기의 (가), (나), (다)를 옳게 나열한 것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서울은 (가)에 올리고 지방은 (나)에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에 신고하고, 그러고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

-「경국대전」 형전-

- ① (가) 승정원 (나) 수령 (다) 홍문관
- ② (가) 의금부 (나) 수령 (다) 홍문관
- ③ (가) 주장관 (나) 관찰사 (다) 사헌부
- ④ (가) 의금부 (나) 관찰사 (다) 사헌부

해설 경국대전에 규정된 소원(訴冤, 억울한 일을 해당 관아에 호소) 절차이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올리게 하였다. cf. 서울은 주장관(主掌官)→사헌부→신문고, 지방은 수령이나 관찰사→사헌부→신문고의 절차

정답 ③

21. 다음 조선 시대 무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281

- 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포르투갈로부터 전래된 조총을 사용하였다.
- ② 비격진천뢰는 심지가 다 탔을 때 폭발하면서 내부의 방철을 사방에 뿌리는 무기였다.
- ③ 불랑기포는 16세기 중국에 전래된 청동제 포로 평양성 전투에서 사용되었다.
- ④ 선조 때 신기전이라는 화살을 발명하였는데, 사격 각도의 조절 범위가 커서 사거리를 최대한 연장할 수 있었다.

해설 ① 일본은 임진왜란 전 포르투갈과 교류하면서 조총을 전수받아 전국전쟁에 활용하고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때도 활용하였다. ② 비격진천뢰는 선조 대 군기시 화포장 이장손이 만든 포탄으로 일종의 수류탄 역할을 하였다. ③ 불랑기포는 명나라 때 서구로부터 수입한 후장식 대포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명군이 갖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설 있음). 임진왜란 때 평양성 탈환에 사용되었고, 신미양요 때는 조

선군의 주력 화포로 운영되었다.

오답 ④ 신기전은 세종 때 발명되었다. 거기에 문종 대 만든 화차(火車)는 최대 발사 각도를 43까지 이르게 하여 화차에서 발사되는 세전이나 신기전이 최대한 길게 발사되도록 발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정답 ④

22.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속한 정치세력과 관계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291

(가) 은(는)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시기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 시기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에 이르러서는 은총이 온 조정을 기울게 하였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지금 (가) 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서 선왕조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 (가) 의 ‘조의제문’을 실었도다.

- ① 향촌 자치를 강조하였다.
- ② 대체로 중소 지주 출신들이 많다.
- ③ 정도전·조준 등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 ④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해설 (가) 김종직. 사림파의 특징에 대해 묻고 있다.

사료 ‘세조 시기 과거에 급제’, ‘성종 시기에 발탁’, ‘(가) 의 제자 김일손’, ‘스승 (가) 의 ‘조의제문’

오답 ③ 관학파에 대한 설명이다. 부.패.과.중.수도.향.온.

관학파(중앙 관인)	사림파(지방 사족)
- 혁명파 사대부 후신 - 국가운영 : 부국강병, 과학기술, 제도정비, 패도수용 - 자주(단군+기자중시) 중앙집권	- 온건파 사대부 후신 - 도덕, 예의 중시(왕도, 소신 중시) - 화이론중시(기자중시) 향촌자치, 중소지주

정답 ③

23.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왕이 행했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367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학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 소란스럽더니, 지금에는 한편 사람을 모조리 반역하는 당으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넓지 못하는데, 요즘은 모두 같은 당의 사람만 임용한다. 높고 낮은 관리들이 공격을 일삼고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나의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니 혹시 의심하거나 기회로 생각하여 상소를 올려 나를 모함한다면 종신토록 금고하여 내가 그들과는 나라를 함께 할 뜻이 없음을 보이겠다.

사료적중 역사일지 p366

- ①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 ②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 ③ 이조전랑의 3사 관리 추천권을 없앴다.
- ④ 남인 계열 등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사람을 고루 등용 하였다.

해설 영조의 탕평교서 내용이다. 영조의 업적을 묻고 있다. ③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자대권],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통정권]을 없앴다. cf. 이조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④ 영조는 노론, 소론, 남인 등을 고루 등용하였다(탕평정치). 소론 외에도,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을 재상으로 등용하였다.

사료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남을 모함한다면 종신토록 금고하여 내가 그들과는 나라를 함께 할 뜻이 없음을 보이겠다.’

정답 정답 없음. (경찰청 답 ④)

24. 다음 보기의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406

(가) 을(를) 팔아 진흙곡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므로 쌀 여섯 가마를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할 것이다.

-「속중실록」-

- ① 평민이나 천민들이 자동적으로 향안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 ② 국가재정이 어렵거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구휼을 위해 남발되었다.
- ③ 조선 시대에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다.
- ④ 임진왜란 때 처음 나타났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해설 (가) 공명첩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이름 쓰는 곳만 비워 두었다가 응모자[구매자]가 있으면 수시로 이름을 써서 주었다. ②·④ 공명첩 제도는 임진왜란 때 처음 나타났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주어졌다.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렵거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賑恤)을 위해 남발되었다. 나중에는 강제로 판매되기도 하였다.

tip 공명첩(空名帖)은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이다. 실제로 벼슬은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주던 임명장으로,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다. 그러나 허직에 불과하고 세습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명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많지 않았다.

사료 '진휼곡을 마련', '쌀 여섯 가마를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할 것'

오답 ① 양인은 관직임명장을 주거나(공명고신첩) 국역을 면하게 해주고(공명면역첩), 천인은 면천시켜주었다(공명면천첩). 향리에게는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도 있었다. 모두가 바로 양반 사족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명첩을 산다고 바로 향안에 입력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25. 다음 보기의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334

(가) 을(를) 하면 파종하는 것에 비해 힘이 5분의 4가 적게 든다. 그러므로 일할 사람이 많으

면 한없이 경작할 수 있고, 땅이 없는 자는 빌려서 농사지을 수도 없다.

사료적중 역사일지 p394

- ① 못자리에서 일정기간 모를 키우다 논에 옮겨 심는 것이다.
- ② 규칙적으로 모를 옮겨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유리하였다.
- ③ 조선 초기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조선 후기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④ 모를 옮겨심기 전까지 쉬고 있는 논에 보리를 심어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여 수확량이 늘어났다.

해설 (가) 이양법에 대해 묻고 있다. ①·②·④ 이양법은 못자리에서 모를 키우다 6월경 모내기를 하는데, 논을 쉬는 기간이 길어져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또 모를 낼 때 줄을 세워 제초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료 '파종하는 것에 비해 힘이 5분의 4가 적게 든다.'(노동력 감소), '한없이 경작할 수 있고'(광작 가능)

오답 ③ 조선전기에는 이양법이 삼남지방에까지 행해졌으나, 정부는 가뭄 피해 때문에 아직은 보급에 대해서 부정적(반대입장)이었다. 《농사직설》이 그 사례이다. 조선후기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급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효종 때 편찬된 《농가집성》이 이양법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정답 ③

26. 다음 보기의 주장을 한 사람이 옳게 연결된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431,436

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해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사료적중 역사일지 p431

나.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중략)…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 때, 국가에 바치는 세를 먼저 제하고, 다음에는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의거하여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사료적중 역사일지 p436

- ① 가 - 이익 나 - 정약용
② 가 - 유형원 나 - 이익
③ 가 - 박지원 나 - 유형원
④ 가 - 정약용 나 - 유형원

해설 가. 한전론(이익) 나. 여전론(정약용).

사료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 ‘1여의 토지는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분배’

정답 ①

27. 다음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중사례]** **역사일지** pp447,445~446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사료적중 역사일지 p447

가. 19세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제우에 의해 창시되었다.
나. 최제우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 교리를 정리하였다.
다.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반외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라. 안정복이 이 사상을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마. 정부는 사교로 규정하고 순조 즉위 후 대탄

압을 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동학사상에 대해 묻고 있다. 가. 물락양반 출신의 최제우(1대 교주)가 1860년 경주에서 창도하였다. 다. 동학은 서학에 대항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으며,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국가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주장(보국만민, 광제창생)을 폈다.

사료 ‘사람이 곧 하늘이라’,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

오답 (나.라.마). 나. (최제우→최시형). 2대 교주 최시형이 최제우의 말을 동경대전(한문, 식자층 대상), 용담유사(한글, 무식층 대상)로 펴내 교리를 정리하였다. 최시형 때는 교단조직도 정비해 교세가 크게 확산하였다. 라. (서학). 정조 때 안정복은 서학을 비판하기 위해 천학고, 천학문답 등을 저술하였다. 마. (서학). 정부는 서학을 사교로 규정하고, 순조 즉위 직후에는 신유박해(1801)라는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정답 ②

28. 다음 보기의 내용이 발표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45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짐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하였으며 우방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직 자주독립을 해야 우리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짐은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고하면서 조종이 남긴 업적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력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료적중 역사일지2권 p44

- ① 지방 제도는 8도의 행정구역을 23부로 개편하였다.
②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 ③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였다.
- ④ 정치부문에서는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하였으며, 8개 아문을 7부로 바꾸었다.

해설 고종이 흥범14조를 반포하기 위해 왕실 조상에 고하는 '종묘서고문' 내용이다(1894.12). 갑오개혁 때의 일을 묻고 있다. ① 8도제 폐지하고 23부제 실시 ③ 사법권 독립 ④ 의정부 8아문 폐지하고 내각 7부 도입. 모두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사료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짐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고', '14개 조목의 큰 규범'

오답 ② 제1차 조선교육령(1911) 내용이다.

정답 ②

29. 학교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적중 사례] 역사일지2권 pp48,178,265

- ①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 ② 1906년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③ 1941년 국민학교령에 의해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④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1995년 교육법 개정으로 1996년 3월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해설 ② 통감부 설치 이후, <보통학교령>(1906)을 반포해 관립학교는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바꾸고, <사립학교령>(1908)을 반포해 사립학교는 설립 인가제,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시행하였다. ③ <제3차 조선교육령>(1938)을 발표해 보통학교를 다시 소학교로 바꾸었고, 1941년에는 교육령을 일부 개정해 소학교를 다시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④ '광복50주년'을 맞이해 김영삼 정부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tip 교육입국조서(1895.2,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 학제 처음 발표) → 보통학교령(1906, 소학교 → 보통학교로 변경) → 제3차 조선교육령(1938, 보통학교 → 소학교로 다시 변경) → 국민학교로

변경(1941, 황국신민학교) → 초등학교로 변경(1995)

오답 ① 1895년 교육입국조서(1895.2)에 따라 소학교,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고(1895.4), 을미개혁 때 <소학교령>(1895.7[양9])이 반포되었다.

정답 ①

30. 다음 보기의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p69,74,79

가.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를 해산할 것.

나. 대한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

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제국 정부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라 → 나 → 가
- ④ 라 → 다 → 나 → 가

해설 라. 한일의정서(1904.2, 러일전쟁 발발 직후) → 다. 한일협정서(1차 한일협약, 1904.8) → 나. 을사늑약(2차 한일협약, 1905.11) → 가. 정미7조약 비밀부수각서(1907, 군대해산 규정)

사료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 →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 →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 → '육군 1대대...황궁 수위...기타를 해산'

정답 ④

31. 다음 보기의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p60,143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개시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 정신도 없었다. …(중략)…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사료적중 역사일지2권 p143

- ① 해외동포의 구호와 지방의 수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운동 등을 하였다.
- ②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 사건 등 사회운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 ③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부인강좌와 순회강연, 야학 운동 등으로 문맹을 퇴치하고 남녀평등 의식을 깨우치게 하였다.

해설 근우회 창립 취지문(1927) 내용이다. ①·②·④ 근우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야학 설치 등을 통해 여성 계몽활동(봉건적 굴레로부터의 여성해방), 여성 노동자의 권익옹호, 일제침략으로부터의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다.

사료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 정신도 없었다.’,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

오답 ③ 최초의 여성운동단체인 찬양회(1898)에 대한 설명이다. 찬양회는 여성들의 최초 집단 상소문인 ‘여권통문’을 발표해(여학교 설치 통문, 1898.9), 여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주청하였다. 그러나 결국 관립학교 설립은 실패하고, 최초의 한국인 여성사립학교인 순성여학교(1899)를 설립하였다.

정답 ③

32.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155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사료적중 역사일지2권 p155

- ① 치안유지법
- ② 미쓰야 협정
- ③ 경찰범처벌규칙
- ④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해설 미쓰야 협정(1925) 내용이다. 일본과 만주군벌 장쥘린(장작림) 사이에 맺은 ‘독립군 현상금’ 협정이다.

사료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침입하는 것을 엄금’,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

오답 ① 치안유지법(1925). 일본 내 활발해지기 시작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든 법으로, 같은 해 조선에서도 시행이 되어 한국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되었다. ③ 경찰범처벌규칙(1912). 국내 한국인 대종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억압 통제하는 치안법이였다. ④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12, 중일전쟁 전).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유예, 형집행 종료, 가출옥한 자를 보호관찰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독립운동 관련자들 감시틀을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대구, 광주,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에 사상범 ‘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했다. 이후에는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2, 태평양전쟁전)을 만들어 사상범의 ‘예비구금’도 가능하게 했다. 치안유지법의 하위법들이다.

정답 ②

33. 다음 보기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p187,196

	한국 독립군	조선 혁명군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관 련 전 투	(가)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영릉가 전투 (나)	호가장 전투 (다)

	전투		
--	----	--	--

- ① (가) 청산리 전투 (나) 쌍성보 전투 (다) 흥경성 전투
 ② (가) 쌍성보 전투 (나) 흥경성 전투 (다) 반소탕전
 ③ (가) 봉오동 전투 (나) 반소탕전 (다) 쌍성보 전투
 ④ (가) 흥경성 전투 (나) 쌍성보 전투 (다) 반소탕전

해설 만주사변(1931) 이후 조·중 연합군의 활동내용을 묻고 있다.

- ♣ 한국독립군(이청천) :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 쌍성보(1932. 9월, 11월), 경박호(1933), 사도하자 및 동경성(1933), 대전자령(1933.6~7, 가장 큰 승리), 동녕현성(1933.9) 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 조선혁명군(양세봉)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영릉가(1932.3), 흥경성(1933) 등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 ♣ 조선의용대(김원봉, 1938) · 한국광복군(이청천, 1940) :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만들고, 이들과 함께 대일전선에 참전하였다.
- ♣ 조선의용대 화북지대(1941.12) : 호가장 전투(1941.12), 태항산 전투(1942.5, 중국 팔로군과 반소탕작전)에서 일본군에게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정답 ②

34. 다음 보기의 내용을 발언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212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자료적중 역사일지2권 p217

- ①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② 송진우 등과 함께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였다.
 ③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인수하여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

다.

- ④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에 반대하여 북한 지도자들과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고자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해설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 내용이다. 이승만에 대해 묻고 있다. ① 해외파여서 국내 조직이 취약했던 이승만이 귀국 후 대동단결의 명분하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를 발족(1945.10)시켰다. 좌익은 참여했다가 친일파 처리문제로 탈퇴해 결국 이승만의 사당이 되었다. 뒤에 반탁운동 중간에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와 합쳐 독립촉성국민회로 개편되었다.

사료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

오답 ② 김성수 ③ 여운형 ④ (김구, 김규식 등). 이승만과 한민당은 줄곧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김구, 김규식 등의 중도파 세력이 북한에 4김회담을 제안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정답 ①

35. 다음 보기의 시기에 통과된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p230,232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임기는 2년이었으며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만들었다.

- ① 농지개혁법
 ② 귀속재산처리법
 ③ 제주 4·3 특별법
 ④ 반민족행위처벌법

해설 초대 국회[제1대 국회](1948.5~1950.5)에서 통과된 법을 묻고 있다. ①·②·④ 제1대 국회에서 제정된 3대법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 농지개혁법(1949제정→1950.3개정·시행), 귀속재산처리법(1949.12)이 있다. 친일파 처단과 적산(敵産,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 만든 법들이다.

tip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 ‘임기는 2년’, ‘헌법을 제정’,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정

부 수립의 기틀을 만들’

오답 ③ 제주 <4·3 특별법>(2000)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다. 제주 4·3사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줄곧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역대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금기시하였다. 1980년대 이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4·3특별법>(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정답 ③

36. 다음 보기의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234

6.25 전쟁 발발	휴전협정 조인
	(가)

- ① 대전협정
- ② 부산정치파동
- ③ 반공포로 석방
- ④ 한미상호방위조약

해설 6.25전쟁 발발(1950.6.25.)~휴전협정 조인(1953.7.27.) 사이의 일을 묻고 있다. ① 대전협정(1950.7.12.). 임시수도 대전에서 주한미군 사법관할권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이 허용되었다. 뒤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966)으로 대체되었다. ② 부산정치파동(1952.5). 이범석이 내무부장관에 임명된 다음날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의원이 통근버스에 탄 채로 헌병대로 연행되었다. 그 뒤 ‘국제공산당사건’이라는 것을 급조해 국회의원을 10명을 구속했는데,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 한다. 개헌(발췌개헌, 1952.7)을 준비해 일으킨 정치파동이다. ③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 사건(1953.6). 이승만이 휴전협정 중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휴전협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북한이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오답 ④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 1950년 1월

체결했던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실질적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확장하였다.

정답 ④

37. 다음의 조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245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료적중 역사일지2권 p245

- ① 학생과 시민은 6·3시위로 불리는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
- ③ 조약의 제2조에 대해 한국과 북한, 일본이 협의 끝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④ 한일협정문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 한일기본조약(한일기본협정, 1965) 내용이다.

① 한일국교 문제가 ‘대일청구권자금’[일본은 독립축하금]으로 낙착되자, 일제강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굴욕적인 회담으로 보고 학생과 시민은 ‘6·3 사태’로 불리는 격렬한 반대시위운동을 전개했다. ② 한일협정을 계기로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다. ④ 위 기본조약 외에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어업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료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

오답 ③ 제2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한국은 ‘당초부터 무효’의 의미로 해석하는 반면, 일본은

‘1945년 패전시부터 무효’의 의미로 해석한다. 후자에 따를 경우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인 것이 되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한일기본조약에 있는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과 북한의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본조약 자체를 날카롭게 반대하였다.

정답 ③

38. 다음 중 제3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251

- ① 향토예비군을 설치하였다.
- ② 학도호국단이 부활하였다.
- ③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였다.
- ④ 가정의례준칙을 고시하였다.

해설 ①·③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1.21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국민교육헌장이 제정·공포되었다(1968). ④ (가정의례준칙(1969)). 전통적 관혼상제의 의례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은 1970년에 시행한 새마을운동과 연결되어 전개되었다.

오답 ② (학도호국단 부활(1975)). 이승만 정부 때 학도호국단(1949)이 창단되어 약 10년간 유지되다가, 4.19혁명으로 해체되고 학생회로 변경되었다(1960.5). 그 뒤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박정희 정부가 1975년 학도호국단을 부활하고 학생회를 다시 해체하였다. 1985년 다시 학도호국단 폐지와 학생회 부활이 확정되었다.

정답 ②

39. 다음 제4공화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249

- ①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 ②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

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해설 유신헌법(7차개헌, 1972)에 대해 묻고 있다.

①·③·④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에 대한 추천권,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초헌법적 명령권(긴급조치권) 등 3권분립이 무력화되었다.

오답 ②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임제한이 없다. 6차개헌(3선개헌, 1969) 때 대통령 4년 임기에 계속 재임을 3기로 정했다.

tip ♣ 중임[연임] 제한 없는 헌법

-2차개헌(사사오입) :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7차개헌(유신헌법) : 연임제한 철폐

1공(정·부통령)			2공	3공	4공	5공	6공
제헌	1차	2차	3차	5차	7차	8차	9차
국회 간선	직선		국회 간선	직선	통·주	대·선	직선
4년			5년	4년	6년	7·단	5·단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간·조 1/3추천	비·조	

정답 ②

40. 다음 보기의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중사례]** 역사일지2권 pp251,258,260

(가)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헌법에 따라 내년 2월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나)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선거로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료적중 역사일지2권 p261

- ㄱ. 언론자유수호선언
- 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ㄷ. 민주화추진협의회 조직
- ㄹ.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선출
- ㅁ.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4.13호헌조치(1987.4.13.) (나) 6.29선언

(1987.6.29.). 6월민주항쟁 시기의 일을 묻고 있다. 르.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선출 (1987.6.10) 모.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1987.5.27.). 국민운동본부에서 '6.10국민대회 선언문'(6.10)을 발표하고 6월 항쟁을 이끌었다.

사료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헌법에 따라...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 /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

오답 (ㄱ.ㄴ.ㄷ). ㄱ. 언론자유수호선언(1974)은 유신정권의 신문사 보도통제에 저항한 기자들의 언론자유운동이다. 긴급조치 1호(1974.1)가 발동되면서 보도통제가 더욱 심해지자,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문>(1974.10.24.)을 발표하고,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자유수호선언>(10.25)을 발표하였다. 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1)이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폭로되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ㄷ. (민주화추진협의회 조직(민추협, 1984.5.18.)). 자택에 연금되어 있던 야당지도자 김영삼이 1983년 5월 18일 5.18 3주기를 맞아 단식투쟁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1984년 5월 18일에는 정치인과 재야인사들(김영삼+김대중)이 연합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을 조직했다. 민추협은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하면서 일단 해체되었다.

정답 ②